

남원, 국민디자인단 과제공모 장관상

‘공무원 100인 원탁회의’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인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최근 실시한 2019 국민디자인단 성과대회 시상식에서 우수상(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민디자인단 성과대회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해 서면평가와 온라인 투표, 결선투표 등을 통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는 대회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 맞춰 정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했는가를 평가하는 대회이다.

장관상을 수상한 남원시에서는 ‘공무원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는 과제를 공모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

책전환을 위해 스스로 행정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공무원 100인 원탁회의’ 등을 비롯해 일하는 방식 개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방안 모색 등이 인정을 받았다.

최근 남원시 정책들은 수요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현상으로, 실제 금암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어린이 디자인 캠프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 간조성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등 정책과 공모기획 단계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공급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이영근 남원시 기획실장은 “금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는 사회적 가치구현과 행정혁신을 위한 남원시 조직진단을 대대적으로 실시,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고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민선 7기 공약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에는 국민디자인단 사업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과 공연, 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동절기 싱싱생생 건강교실 출발

오늘부터 운봉읍 임리 경로당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운영

남원시가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역점시책의 일환으로 12월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읍면동지역 288곳 중 운봉읍 임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동절기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교실은 강사 41명이 4개월간 직접 경로당,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규칙적인 신체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전문체조강사가 주2회 1시간씩 흥겨운 음악에 맞춰 근

력강화체조, 두뇌튼튼을 위한 치매예방체조를 진행하고, 사업담당자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기초건강검사와 치매조기검진·우울증 검사,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운동매트, 탄력밴드, 지압로프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한다.

지난해 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은 “겨울엔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경로당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을 움직이고 근력강

화 체조로 여가를 활용할 수 있어 매일이 즐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남원시보건소의 ‘싱싱생생 건강교실’은 올해 운영된 건강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어르신 95%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꼽아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올겨울 싱싱생생 건강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장류산업 발전 위해 ‘콩’ 개발 활발

서울대와 간담회 및 평가회... 2022년까지 품종 등록 목표로 행정력 집중

순창군이 장류 원료인 순창 콩, 고추 품종을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 이석하 원장의 3명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순창 콩 개발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현재 군은 장류 고장 순창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품종 개발에 나서며 지난 2018년에 서울대 MOU를 체결하고, 오는 2022년까지 순창콩 품종 등록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지역적응성 및 품종 보전 시험을 통해 다 품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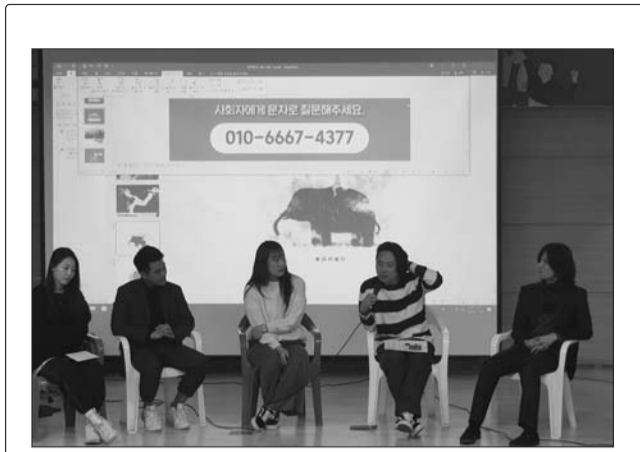
비해 수량이 많게 나왔고, 관능평가 결과에서 색과 맛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 참가한 박수남씨(53세, 남)는 현재 진행중인 품종개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올 대풍에도 콩의 색과 크기, 수량이 크게 뒤쳐지지 않아서 순창군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만 정립되면 고품질의 기계 수확형 품종으로서 매우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승 소장

은 “내년에는 적성면이나 동계면 등 평야지에도 관악호와 신품종을 추가하여 순창군 지역적응시험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순창콩을 개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메주콩 개발이 완료되면 연이어 녹두, 팥 품종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전국 최고의 두류 원료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지난 29일 수능을 마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각 학교 강당에서 '진로탐색 특색 콘서트'를 열었다.

고3 수험생 '진로탐색 특색 콘서트'

순창군, 200여명 대상 연극 및 음악 콘서트 등 공연

순창군이 지난 1년간 대학 진학을 위해 힘 없이 달려온 고3 수험생을 위해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29일 수능을 마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각 학교 강당에서 문화공연과 강연이 함께한 '진로탐색 특색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진로탐색 특색 콘서트'는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설계 등으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로탐색 특강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토크와 마음이 지친 청소년들을 위로하기 위한 연극과 음악콘서트로 구성했다.

이날 콘서트에 초청된 김정배 원광대학교 교수는 '포드폴리오 독립생활자'라는 신조어를 소개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다양화해

한 곳에 몰입하지 말 것,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성이 확보되면 과감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순창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음악창작곡인 공연도 이어지며 그날 하루는 잠시나마 대학 입학에 대한 걱정을 잊고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지역 청년들과 재미있는 잡(jab)담(談)의 시간도 마련해, 미래 직업으로 각광받는 크리에이터와 지역을 리더하는 청년농부들이 정보전달 중심의 진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실감 있는 사회 경험을 서로 공유했다.

한편, 군은 12월 6일에도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특색 콘서트'를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농업기계 교육사업 종합평가회 남원시 농기센터, 우수기관 수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가 농촌진흥청이 주최 실시한 농업기계 교육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했다.

이번 수상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업기계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추진해 온 점이 인정받아 우수기관 상을 수상한 것이다.

센터에서는 평소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 농업기계 기술인력양성, 밭 농업기계 정비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강화해 실시하는 등으로 농업기계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나상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농업기계 사용법과 체험 및 각종 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추진하는 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버스 승강장 한파 대비 온기 나눔터 내년 3월까지 운영

남원시는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기 위해 16개소 읍·면사무소 앞 버스승강장을 온기 나눔터로 변모시켜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기 나눔터는 추운겨울 버스를 기다릴 때와 같이 길에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경우 잠깐이나마 찬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올해 마련한 온기 나눔터는 아스테이지를 소재로 하는 여단이문 형식이며 보온효과가 좋으며 관리가 용이할 뿐 아니라 파손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에서는 취약계층보호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으로 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한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한파에 대비해 한파대책 532개소 운영, 한파 행동요령 안내, 각종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설대체를 통해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